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이 제목은 사실 얼마 전 출판계와 관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모 전자책 서비스 회사의 광고 카피다. 이번엔 서점 주인이 쓰는 칼럼 제목으로는 매우 아이러니해 보이는 이 제목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 회사는 회원가입을 하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위 구독경제라 불리는 소비 방식을 독서에 적용해 월정액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한 달에 1만 원 남짓한 금액만 지불하면 다양한 방식의 독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올로(YOLO)'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구독

요즘도 책 사러 서점 가요?

경제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 서비스에 한 번이라도 가입해서 사용해본 누적 사용자 수는 벌써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런 회사가 최근 종이책 시장으로 진출해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를 론칭하며 내세운 광고 카피가 바로 오늘 칼럼 제목이다. '요즘도 책 사러 서점 가요? 이제 서재로 가요. OO의 서재!', '어떡하죠? 지금 가는 서점에 이 책은 없을 텐데'라는 글자와 방송에도 많이 노출되어 낮은 얼굴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을 들고 있는 이미지가 대문짝만하게 서울 시내버스 외부와 서점 앞 광고판을 장식했다.

1차적인 비판은 광고 모델이 된 작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 동네책방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심지어 "독자들이 한 번이라도 서점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라 말하며 울해 나

온 신간의 동네책방 예디션까지 별도로 출간했다. 그렇기에 '요즘도 책 사러 서점 가요?'라고 말하는 카피 옆 그의 얼굴은 많은 이들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당연히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 건 자신들의 경쟁자는 오프라인 서점이 아니며 설립 초기부터 서점 및 출판사와 상생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지향해 왔다는 바로 이 회사다. 그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모델로 기용해 광고를 내걸기까지 그 누구도 이 카피에 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혹은 이것이 그저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이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도대체 어떤 책을 만들어 팔겠다는 것인가. 이 일이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한순간의 헤프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플랫폼에서만 유통할 종이책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며 일어난 사고라 심각성이 더 크다.

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인 전자책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인가? 결국은 모두 종이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서점에서 책을 사지 말라고 하면 출판사 보고 종이책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걸 단순히 서점들을 우롱하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경쟁 구도로 생각해 나올 수 있는 카피가 아니라 출판부터 유통까지 독과점으로 가겠다는 오만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 비판 속에 즉각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수십 년을 피땀 흘리며 쌓아온 출판사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종이책과 출판 생태계를 자본 논리로 한순간에 비롯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그들의 광고는 업계에 큰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그들이 부디 출판계에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돈을 생각 없이 쓰지 말기를 바란다.

사설

종합 청렴도 전국 꼴찌 불명예 안은 제주도

제주도의 청렴도가 끝없는 추락 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종합 청렴도 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와 함께 5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전국 6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받아든 성적표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부문별로는 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각각 5등급을 받았습니니다. 내부청렴도 역시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5등급은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각각 2등급씩 떨어진 것입니다. 1등급을 기록했던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나 하락했습니다. 청렴도가 전국 꼴찌라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그만큼 심각

하다는 방증입니다. 공직사회가 제주도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소방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난해 8월에 확정됐고, 상하수도본부 비리가 터진 것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성하기는커녕 변명하는데만 급급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도 그동안 특만 나면 공직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별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주민주정서비스 향상이나 공정·정의사회 구현도 헛돌게 됩니다. 다른 어떤 도정 과제 못지않게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의 처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청년층 늘리는데 인구정책 초점 맞춰야

제주인구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입니다. 최근 몇년간 제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한 해에 1만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제주살이 열풍으로 끊이지 않았던 인구 유입도 이제는 완전히 한 풀 꺾였습니다. 제주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서 제주도가 종합적인 인구정책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제주인구는 내국인 기준 67만895명입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 3704명이 증가해 월평균 336명꼴로 늘었습니다. 제주인구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제주 인구는 64만1597명에서 2017년에는 65만7083명으로 1년새 1만5486명이 늘었습니다. 이어 2018년엔 66만7191명으로 1만108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1만명 이상 늘다가 올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구

정책 종합계획에 전략프로젝트로 청년인구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분명 제주 인구구조가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순유입 인구가 내리막길로 돌아섰습니다. 또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년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주가 활력을 찾으려면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청년인구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에 진입하는 청년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진출하는 청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겠습니까. 제주에 동지름을 들고 살기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인구정책도 청년들이 살만한 제주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in

제주도교육청, 11년 연속 청렴도 1~2등급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 〇...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2009년부터 10년 넘게 공공기관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둬 눈길.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 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고 언급.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 제주 교육'을 위한 도민과 교육 가족들의 하나된 노력이 11년 동안 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한 토대가 됐다"며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동장 주민추천 공모 2명 지원

〇...제주시 이도2동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모두 2명이 지원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

제주시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첫 시행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2명이 지원.

시는 이달중 주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자 1명을 추천하면 2020년 1월 정기인사시 이도2동장에 임명할 계획. 고대모기자

서귀포시 청렴도 첫 1등급

〇...서귀포시가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분야 종합청렴도에서 처음으로 1등급을 달성.

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57점으로 전년(8.31점)보다 0.26점 상승했는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77개 시의 평균(7.93점)보다 0.64점 높은 수준.

시 관계자는 "작년 2등급에서 올해 1등급을 목표로 부서별 고객 불만 제로화 시책부터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취약분야 현장방문과 청렴연계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 문미숙기자

열린마당

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 대비해야



최유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수의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세척공정 시스템으로는 '비 접착식 라벨'을 분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한다.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라벨등급에 따라 '비 접착식'이더라도 비중 1이상이면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는 '세척과정'에서 분리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 세척공정에 수분리성 접착제라고 하지만, 분리하기 위해 90도 온도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해 환경오염이 초래한다.

일본은 정부에서 법으로 엄격한 분리배출 제도를 정하고 있고, 길변라벨 지를 가정에서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절취선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경우 접착제를 바르지 않아서,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페트병 사용을 줄이는 것도 과제지만,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는 분명하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고려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송왕철(제주대학교 교수) 아버지 여산송공 무훈(前 서귀포시장, 前 대 한적십자제주지사 회장, 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10일 05시 0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1일(수)
▶발인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9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선영

부고 채승원(채승원치과의원 원장) 아버지 평강채공 종찬(향년 87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9일 17시 0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1일(수)
▶발인일시: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장 지: 성산읍 시흥리 선영

부고 김택수 아버지 김해김공 성찬(前 초동교장·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8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3일(금)
▶발인일시: 2019년 12월 14일(토)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제주시 광령리 선영

부고 김덕일(前 하귀농협 상임이사) 아버지 김해김공 예호(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10일 1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12일(목)
▶발인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12월 11일(수) 7분향실 12월 12일(목) 4분향실
▶장 지: 송당리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귀일(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19년 12월 9일 주주총회에 갈 음하는 주주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200,000,000원을 금100,000,000원으로 감소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2019년 12월 9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인분비례 하여 무상소각하고 발행 주식총수 40,000주를 2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주식회사 산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65, 109동 302호 (이도이동, 해성무지개타운상가) 대표이사 이미숙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 강두현
주소(본적) : 화북일동 4207
선홍리, 회천동 일원에 강두현氏의 사정토지(분묘)가 있사오니 후손 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913년 8월 사정토지 등록
- 2014년, 2017년 후손들이 주소 등록 진행
- 현재 미등기토지
문의 : 오세형 010-5531-5538